

【학술기행】

## 러일, 만몽, 몽몽의 대결

-노몬한(할힌 골) 전투 70주년 기념 학회 참관기-

한석정\*

몽골어 훈(양고기), 헐(쇠고기), 세레(돼지고기), 바르야랄라(고맙습니다) 정도를 외우고, 2009년 7월 1일 밤 인천발 울란바토르행 아시아나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만난 한 몽골 여인은 화려한 옷과 루이비통 핸드백으로 치장하고 있어 변화하는 몽골을 예감케했다. 자정을 넘어 도착해보니 울란바토르공항은 60년대 부산의 충무동 시외버스 정류장만큼 좁은 장소였다. 그러나 이것이 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인양 수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 내린 손님들을 에워싸서 빠끔히 쳐다보고 있었다. 미나이트 블루(midnight blue) 색깔의 막힘 없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별과 톱 트인 사방의 허허벌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은 한국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너무도 친숙한 얼굴들(-만주학회의 충무 정안기 박사와 비슷하게 생긴-)의 세상이었다. 외계와 단절된 60년대에 동구권에 처음 진출한 중앙일보 기자는 헝가리의 극장에서 영관 한국인(북한사람으로 추정)을 발견, 너무도 반가워 접근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울란바토르 출신이라 했다. 그런데 이곳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다소 넓은 범위를 자처했던 나의 전공 영역 너머의 신천지였다.

\*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나는 전경수 교수(서울대 인류학과)의 권유를 받아 ‘할힌 골(Khalkyn Gol) 전투, 혹은 노몬한(Nomonhan) 사건 70주년 기념 국제학회’에 참가했다. 이것은 승전 러시아, 몽골 측에서 ‘전투’라고 부르고, 패전 일본이 축소지향의 ‘사건’으로 부를 만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관동군 수만명의 궤멸로 일본제국에 큰 상처를 남긴 전투, 미국 역사학자 앨빈 쿡스(Alvin Coox)의 연구(1985)로 알려질 때까지 오랫동안 은폐되었던 러시아(정확히는 구 소련)와 일본 간의 전투였다. 현재의 선린 관계를 반영하듯 몽골의 몽골기록원(Mongolian General Archival Authority), 몽골과학원(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일본의 세키구치 연구재단(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 등이 주최한 학회는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 일본, 몽골 외에도 영국, 미국, 중국, 타이완, 한국의 학자들을 망라, 국제성을 드높였다. 이 부산함은 몽골의 지하자원을 두고,<sup>2)</sup> 또한 강성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몽골에 추파를 던지는 과거의 혈맹 러시아, 미국, 일본 외교의 축소판 같았다.

이것은 러일전쟁(1904~1905년) 이래 동북아의 잠재적인 라이벌인 러시아와 일본 간의, 혹은 양국 최초의 위성국 혹은 괴뢰국인 몽골(통칭 외몽골이라 불렀던)와 만주국 간의 소규모 국경분쟁들이 점차 고조되면서, 결국 1939년 여름 노몬한에서 결판이 난 전투였다. 노몬한은 몽골의 동쪽 끝과 만주국의 서북쪽 경계, 몽골들이 할힌 골이라 부르는 강의 동쪽 20킬로 지점이다(첨부 지도 참조).<sup>3)</sup> 그 이전 양측의 국경분쟁 중 대표적인 것은 노몬한전투 1년 전의 함경북도 너머 러시아와 만주국 간 국경지대인 장꾸평(張鼓峰)에서의 충돌이었다.

노몬한전투는 엄청난 병력(내몽골이군 1만명 이상 포함, 일본측만 7만 5

2) Uradyn Bulag, 2009 "The Nomonhan Incident and the Politics of Friendship on the Russia-Mongolia-China Border." *Japan Focus* Dec. 1, 3쪽.

3) 출처: Alvin Coox, 1939 *Nomonhan: Japan against Russia*, (198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144쪽.

천명)과 비행기, 기갑부대가 동원되고, 모두 6만5천명이 희생된(러시아측 주장에 따르면 일본측만 5만5천명), 분쟁(skirmish)과 대대적 전면전 중간 크기의, 4개월 걸린 ‘긴 작은 전쟁’(long small war)이었다. 러시아 승리의 요인은 훌륭한 정찰·준비·지휘체계·속도·보급·화력,<sup>4)</sup> 주코프(Zhukov)의 눈부신 작전, 그리고 관동군의 방심, 일본 육군본부의 확전 여제 등에 있었다.<sup>5)</sup>

쿡스에 의하면, 이 전투는 세계사의 전환점이었다. 노몬한의 패전으로 인한 대러시아 공포로 일본은 1941년 파시스트 동맹인 독일군의 러시아 공격에 동참하지 않았다. 만약 일본이 독일의 요구에 응해 러시아를 동쪽에서 침공했다라면 소련은 두 전선을 지탱할 수 없어, 붕괴, 전후 냉전시대에 거대한 사회주의 진영을 구축할 수 없었을 것이라 한다. 결국 일본은 소련과의 대결인 ‘북방노선’을 폐기하고, 자신의 패망을 초래할 운명적인 남진(南進)을 감행하였다. 즉 미국과의 전쟁으로 치닫게 된 1940년 동남아, 태평양행 진격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1,250쪽에 달하는 방대한 쿡스의 역작은 후세 학자들의 연구 여지를 극심하게 좁혀버렸다. 10년 전 노몬한 6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출판된 연구들은 모두 군사사가들의 것으로서, 군사작전의 측면(군용 무선전신, 항공작전, 합동작전 등)을 통해 일본측 패인을 반추하고 있다.<sup>6)</sup> 그런데 쿡스는 이 전투에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동원한 외몽골군과 흥안(興安)군(만주국군 소속의 내몽골군)의 존재를 무시했다.

올해 70주년 학회는 울란바토르라는 학회 개최 장소와 초청자의 감격을 다분히 담고 있었다. 학회에는 몽골 거주 할하(Khalkha)와 중국 내몽골 거주 바르가(Barga), 시베리아 거주 부리야트(Buriyat) 등 세 종류의 몽골들이 참가했다. 다수가 콧수염을 기른 줄담배이자 레슬링선수를 방불케하는 덩치들였

4) 후일 대독일 항전과 베를린 점령 등을 이끈 소련의 전쟁영웅

5) Ibid., 1075~1094쪽.

6) 『軍事史學』 32(4)(1997)에 실린 河下邊宏滿, 「航空作戰から見たノモンハン事件」 등 참조.

다. 대부분의 몽골 발표자는 군사사가 혹은 몽골 국사 전공자로서 오늘날 경제적, 국제정치적으로 발돋움하려는 몽골의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이 전투를 평가했다. 어떤 이들은 참전자인양 무공훈장을 단 군복을 입은채, 마치 군대 지휘관이 작전을 설명하듯 지도가 그려진 차트를 짚으면서 전투상보를 읊었다(그런데 참전은 불가능했다. 만약 그 당시 20세에 참전했다면 현재 90세이니). 대부분의 러시아학자들도 세밀한 승전 일지와 러몽 혈맹의 역사 등에 치우쳤다. 몽골과 러시아는 여전히 연합, 역사의 세계에서 현재의 강국 일본과 중국을 정신적으로 눌렀다.

학회는 크게 셋으로 나뉘었다. 1부는 새로 발굴된 문서 등을 통한 전투사, 전투의 기억, 2부는 전투의 비교적 의미, 3부는 전투에 대한 문화적 접근으로서 모두 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부의 발표들은 전투일지를 방불, 군사적 측면에 집중했다. 전투에 이르렀던 긴박한 상황, 만몽관계, 국경 분쟁의 정황, 관동군의 오만과 과실(지도 제작의 오류와 다른 보고서들의 무시), 러시아측 승리의 기술적 요인, 러시아의 대몽 군사적 지원의 내용, 양측의 동원과 희생자 규모<sup>7)</sup> 등 미시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 군사사가 스투어트 골드먼(Stuart Goldman, 미국 안보연구소)은 룩스의 가설을 심화시켰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소련은 나치의 침공시 일본의 주저로 인해 미래의 러일전쟁에 대비했던 극동의 대병력(18개 사단과 1,700대의 탱크, 1,500대의 비행기)을 성공적으로 모스크바 방어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노몬한 전투에 참전한 인물이자 일본군의 남침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1940년대에 동남아 일대를 누빈 일본의 풍운아 츠지 마사노부(辻政信) 중령의 일대기를 파고들었다.

<sup>7)</sup> 몽골학자 간볼트(Ganbold)는 위몽골이군 약 9천명, 소련군 5만3천명, 만주국군 1만8천명(대부분이 몽골. 그 중 1만2천명이 기병), 일본군은 5만5천에서 7만5천명의 참전규모를 추산했다.

보다 흥미있는 것은 2부, 3부의 발표들이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몽골사 전문가요, 올해 노몬한전쟁에 대한 책을 펴낸 다나카 가즈히코도 참가했다. 그에 의하면, 노몬한은 원래 몽골의 일파들인 할하와 바르가의 자연경계였는데 몽골과 만주국의 성립으로 이들 사이에 국가 간 경계가 형성, 원치 않은 상호대립을 맞게 되었다. 이들의 분쟁 회피, 연합 의지, 혹은 범몽골주의(Pan-Mongolism)는 러시아와 관동군 모두의 경계 대상이어서, 몽골과 만주국 내의 범몽골주의자들은 노몬한전투 이전부터 착착 제거되었다. 이 전투에는 링성(凌陞) 사건 등 범몽골주의의 환상을 뿌리 뽑는 의미가 있었다.<sup>8)</sup> 이것으로 내가 줄저에서 다루었으나 연유를 알 수 없었던 의문, 즉 1936년 4월 성장 링성을 포함, 만주국 흥간(興安) 북성(北省) 고위인사(제1경비군 참모장, 경무청장 등) 4명이 몽정부(중앙정부의 대몽골 부처)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스파이로 몰려 사형판결을 받은 뒤 신속하게 처형된 사건이<sup>9)</sup> 풀렸다. 다나카는 좌파 국제주의나 제국주의의 경계와 동연에 서있지 않는 민족주의의 운명을 지적한 셈이다.

볼드바타르(Boldbaatar, 몽골국립대)와 볼트(Bold, 몽골 정보국)의 공동연구는 노몬한전투가 몽골의 국내 정치에 이용된 면을 밝히고 있다. 러일 간 국경분쟁은 몽골 지도자 최발산(Choibalsan)(1920년대 말부터 1952년까지 몽골의 주석)의 권력 공고화에 이용되어, 숙청의 피바람을 몰고 왔다. 1930년대 중반부터 몽골정부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일본을 최대의 적으로 선전했는데, 이 경직된 상황에서 무수한 이들이 ‘일본스파이’로 몰려 처형되었다. 울지바타르(Ulziibaatar, 몽골기록원)에 의하면, 1937년 10월에서 1939년 4월까지 약 2만6천명(2만명의 라마승려 포함)이 ‘일본스파이’, 혹은 ‘반혁명분자’로 몰려 죽었다. 또한 최발산은 자신을 외적에서 조국을

8) 田中克彦, 『ノモンハン戦争—モンゴルと満洲国』(岩波新書, 2009), 109~112쪽.

9) 줄저, 2008 『개정판: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 178쪽.

구한 민족의 영웅으로 포장, 노몬한전투를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는 중요 자원으로 이용했다. 간볼트(Ganbold, 몽골군사연구센터)는 이 전투가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닌 몽골의 국력을 온통 쏟아 부은 사업임을 밝혀낸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몽골 국방비는 1935년 40.5%에서 1938년 52.6%, 1939년 60.6%로 치솟았다가, 1945년에 이르러서 40%대로 내려온다.

불락(Bulag, 캄브릿지대)은 이 러일전투 안의 만몽대립(몽골군과 만주국군의 동원)과 몽몽대립(할하와 바르가 간 부족 학살)의 요소를 지적했고, 나도 이 전쟁의 괴뢰적 측면을 살폈다. 나는 성경시보(盛京時報)와 남만주철도회사(만철)의 기록영화 등에 나타난 편린을 통해, 노몬한전투와 이것을 촉발한 장꾸평전투에서 희생된 만주국군 병사들과 내몽골 병사들이 만주국의 공식 기억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주로 보면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동서양 제국주의자들이 조직한 식민지 토착군의 성격 을 짚었다. 장꾸평 전투와 노몬한전투는 일본지배자들이 그들의 괴뢰군을 최초로 실전에 내보낸 경우이다. 만주국정부는 (몽골거주 지역에서 꽤나 떨어진) 장꾸평전투에서 사망한 관동군, 만주국군 외에 내몽골군 전사자를 위해 추도행사를 했으니, 일본지배자들은 러일 간 분규에 몽골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용한 듯하다. 장꾸평전투와 노몬한전투의 차이가 있다면, 전자의 추도행사가 수년간 지속된 데 비해 후자는 만주국 패망까지 일체 언급되지 않아 그 깊은 상처를 알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몽골연구자인 크리스토퍼 앳우드(Christopher Atwood, 인디아나대)는 러시아와 일본 지배자들이 몽골과 만주국에서 추진한 근대화의 공통점을 살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몽골 자치지역 설정, 몽골 언어의 장려, 귀족들의 영향과 유전적 요인(특정 가문의 특혜)의 배제, 국가 기구의 강화, 사적 거래를 누르기 위한 조합 활동 장려, 라마 사원의 권력 축소, 교육과 징병을 통한 인구의 정렬, 근대적 교육을 받은 소수 관료들의 중용, 전

통 왕족과 종교 지도자들의 흡수, 혹은 억압 등을 수행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 국가 파워의 강화, 내셔널리즘의 고양 등 두 곳의 이념도 닮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 지도자들의 애매한 태도로 인한 만주국의 불량한 성격이다. 일본 지배자들은 만주국 내에서 몽골지역의 격리(오늘날 자치주와 유사)와 몽골학교의 중국어 추방 등 몽골문화 창달에 애를 쓰면서도 전체 몽골의 통합은 기피했다. 당시 몽골지역에 썩안 동, 서, 남, 북 성공서(省公署) 등 몽골 행정부서 4개를 따로 존치시켰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몽골지역의 행정조직과 관료들은 만주국으로부터 이어받은 유산이라 한다.

후설 보리진(Husel Borjigin, 도쿄대)은 현재 중국의 내몽골계 학자들의 연구경향을 소개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이들은 당시 만주국군 내의 내몽골 기병들의 용맹과 희생, 부분적 승리,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내몽골 기병 부대의 기원(만주국군의 몽골기병으로부터 유래) 등을 기술하고 있다. 마침내 노몬한 전투 당시 몽골군(외몽골)의 승리는 몽골 전체의 승리로, 따라서 만주국군의 내몽골 군인들의 승리로도 볼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3부의 발표는 몽골영화, 문학 등의 세계에 반영된 노몬한 전투에 관한 것들이다. 오카다 카즈유키(도쿄외대)는 근작 영화, [그림자](Suuder)를 분석, 이념적 요소의 감소를, 즉 냉전시대의 주제(일본 침략에 맞선 러몽군인들의 영웅적 항쟁) 대신에, 보편적 휴머니즘(전쟁이 인민의 운명과 삶에 끼친 심대한 영향, 전쟁으로 엮힌 남녀의 사랑 등)을 발견한다. 그는 주인공들의 고난과 용서, 구제를 통해 이 시점에 몽골사회의 전반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도죽진 체테프(Dojoogjin Tsedev, 몽골예술문화대학)는 노몬한 전투가 그간 몽골문학의 상당한 자원, 영감이었으나, 이제 새로운 흐름이 출현함을 지적했다. 아키라 카미무라(도쿄외대)는 몽골 민족주의와 젠더 이슈를 다룬다. 그는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여성, 혹은 여성의 신체가 오랫동안

동안 몽골 민족주의의 비유(예컨대, ‘침략자들에 짓밟힌 모국’의 담론)였으나, 사회주의 시대이래, 마르크스, 레닌 등 몽골 사회주의의 아버지들에서 90년대 범몽골주의의 기원인 징기스칸까지 부계로 대체되었음을 본다.

여러 발표들은 이처럼 군사적 측면에서부터 비교, 문화적 측면까지 풍성한 내용들이었다. 다만 참전 위성국 혹은 괴뢰국 군대의 운명을 논한 불락과 나의 글은 몽골 민족주의에 찬 물을 끼얹은 것이었다. 다행히 나의 영어 논문은 참석한 영, 미학자들의 흥미를 촉발시켰으나 일반 청중에 제대로 통역, 소통되지 않았다. 몽골 국립 TV의 기자가 우리 몇 발표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위성국 혹은 괴뢰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70년의 러몽 특수 관계는 몽골어를 러시아 알파벳으로 표기할 정도로 심대하다. 이 영향 때문일까? 혹은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있었던 역사가 창피한 것일까? 휴계시간에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몽골기록원의 한 여직원이 나직하게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고 충고했다.

흔히 학회는 공식일정과 사석의 친교인 비공식 일정,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사석에서 몽골의 한 언론인은 1935년 만몽 국경분쟁시 2명의 조선인이 몽골군에 포로로 잡혔다는 정보를 주었다. 미국인 옛우드교수는 나에게 20세기 전반 동북아의 조선인과 몽골의 이산, 토지, 시민권, 혁명 등에 관한 국제학회를 제안했다. 그의 부인은 조선족이다. 불락교수는 노몬한 전투에서 관동군이 (당시 731부대에서 개발된 가능성이 있는) 초원의 역병(bucolic plague)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렇다면, 노몬한은 생화학전투에서도 전기가 될 것이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군들은 일본군들을 박멸대상인 쥐나 해충으로 보았는데,<sup>10)</sup> 노몬한에서 일본군도 몽골이군 병사들을 역병으로 절멸시킬 비인간적 존재로 간주했나 보다. ‘휴전선의 풀밭의 괴질’은 한국

<sup>10)</sup> John Dower, 1986 *War without Mercy: Race and Power in the Pacific War* (N.Y.: Pantheon), 90~93쪽.

사회에서 60, 70년대 간혹 언론에 대서특필된 정보인데, 이것이 하얼빈 731 부대에서 개발되어, 노몬한에 살포된 것과 관련이 있을까? 불락의 도발적인 주장들은 그가 몽골기록원이 아닌 명문 캠브릿지대학의 교수임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중국 내몽골에서 태어나 캠브릿지에서 인류학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10년간 교수생활을 한 뒤 근래 이 대학에 초빙되었다. 그는 수년간 만주학회에 참가했던, 미국, 독일, 일본에서 수학한 뒤 호주국립대에 재직하는 리 나라고와(Li Narango)교수와 함께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드문 몽골계 학자이다.

학회 뒷날 오전에 우리는 몽골기록원을 방문했다. 협소한 장소에 직원들은 참으로 많다. 울란바토르에는 사회주의체제의 유산인 철밥통과 상업회의 물결, 두 개가 공존한다. 이곳은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제국의 지도들, 김일성을 닮은 최발산, 주코프장군 등 역사적인 인물과 노몬한 관련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과연 노몬한은 몽골 국가형성(state formation)의 가장 중요한 계기인 듯하다. 저녁에 도시 외곽 시원한 산록의 대통령 관저 곁의 영빈관에 초대되어 몽골 민속 복장과 몽골제국의 장군 복장을 한 예술인들의 노래와 춤을 구경했다. 기타 비슷한 악기에서 나오는 음악은 말을 타고 초원을 경쾌하게 달리는 풍이 있었다. “월월월월”하고 남성의 목청에서 계속 진동하는 요들송 비슷한 노래가 특이했다. 이것이 몽골제국의 팽창 중 스위스에 전파되었을까 아니면 반대방향의 것일까? 허리를 세우고 무릅을 낮추어 엮을 기는 듯한 여성 무용수의 섹시한 춤은 당시 초원 위에서 병사들을 위안하는 종류, 마치 60년대 월남의 한국군 병사들 앞에서 공연한 연예인들의 무용 같은 것으로 보였다. 아마도 몽골제국 시절 그 정도의 노출과 율동만 허용되었을 것이다.

학회 일정 최종일 시내로 따라 나섰더니 시내는 온통 징기스칸으로 도배질되어 있었다. 도심의 의회 계단 위에는 미국 워싱턴DC의 링컨 석상을 모

방한 듯한 거대한 징기스칸의 상이 있고, 그를 뜻하는 한(Xaan) 은행, 한 보드카 등 온통 한의 행렬이었다. 몽골 전통천막 게르처럼 꾸며진 큰 식당의 벽에도 그를 위시, 몽골제국의 황제들의 초상화가 쪽 걸려있었다. 그 절정은 울란바토르 근교 초원 위에 세워진 그의 기마상이다. 이것은 세계최대의 사람 형상의 스테인레스 구조물이다. 꼭대기에 오르면 사방이 툭 트여 세상을 호령하는 느낌이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의 어느 산을 60년간이나 깎아 만들고 있는 크레이지 호스(crazy horse)(1870년 백인 기병대에 결사항전했던 인디언 라코타족의 용사)의 기마 석상의 분위기가 있다. 다만 크레이지 호스 상에는 저항의 이미지(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미국의 다섯 대통령 상에 대항하는)가, 징기스칸의 것에 과거의 영광을 찾으려는 몸부림의 차이가 있다. 본격 비공식 일정은 이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들판의, 수십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흰색 게르 안에서 시작되었다. 탁 트인 초원에 십여 게르가 서있는데 중앙의 것은 온통 몽골군 사령부 막사처럼 꾸며놓았다. 게르의 구조는 원래 출입구 맞은 편에 불상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측의 남성의 공간(밝은 세계를 뜻하는)과 좌측의 여성의 공간(취사 등이 이루어지는)으로 나뉘어진다. 손님들은 이것을 알 수도 없으니 대충 섞여 앉았다. 이제 초원의 연회가 시작된다. 몽골은 육식 동물이다. 온통 고기만 먹는다. 우리도 학회 기간 내도록 각종 고기로 배를 채웠다. 간혹 식당에서 약간의 오이, 홍당무 조각 약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요새 생긴 변화일 거다. 훗카이도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나의 벗 아이토루교수는 몽골계인데, 학회 후 회식 식단-사실 우리 농경정착민들의 메뉴-이 맞지 않아 근처 가게에서 몇 가지 식품을 사서 벤취에서 혼자 식사를 하곤 했다. 그의 모친은 밥, 빵 등 전분결에만 가도 알레르기가 날 정도의 유목민 체질이라 했다.

수백도로 달근 큰 점점 자갈과 같이 여러 조각을 대형 단지 안에 넣어 밀봉, 몇 시간 익힌 양고기 요리와 보드카가 나왔다. 전체로 나온 것은 선지,

순대, 내장 등인데 아무 것도 가미하지 않은 순수한 맛이 괜찮았다. 곧 본 요리가 나올테니 자제하려 했지만 신기한 맛에 손이 자꾸 갔다. 곧 이어 큰쟁반 위에 함박눈 같은 비개가 더덕더덕 붙은, 장작개비만한 양고기 갈비와 살점이 끝없이 나온다. 우리는 유목민처럼 맨손으로 이것을 들고 뜯었다. 덩치 커고 뱃살이 출중한 여종업원들에 의해 보드카는 무한 리필(re-fill)되었다. 그런데 주인은 나를 흘금흘금 쳐다 보더니 어떻게 알아챘는지 아주 귀한 음식인양 김치 한 접시를 내어온다. 김치는 양고기와도 궁합이 아주 좋다. 우리는 점심으로 익힌 양고기, 저녁으로 불에 그슬린 염소고기(배가 불러 얼마 먹을 수 없는)를 포식했다.

우리는 대낮부터 술잔을 들고 풀밭에 나가서 노래하며 춤추고 놀았다. 산이나, 바닷가에서의 연회와 다른 독특한 맛이 있었다. 나는 이곳의 깊은 러시아 영향을 고려, 러시아의 민중영웅의 노래, <스텐카 라진>을 불러 갈채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취중에 씨름의 최강자를 뽑았다. 놀랍게도 50대의 주최측 책임자(몽골기록원장) 울지바타르가 우승, 한(Xaan) 보드카 한 병을 땀다. 몽골어나 러시아어만 사용하는 대부분의 참석자들과 통화가 불가능했지만, 취중에 서로 끌어안고 배를 통기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춤추는 신체 언어는 문제가 없었다.

7월의 울란바토르는 백야현상이 있어 밤 10시가 되어야 겨우 어둑어둑해졌다. 태어나 독한 보드카를 이렇게 많이 마신 적이 없었으나 견딜만했다. 아마도 배를 가득 채운 양고기, 염소고기 덕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산다. 시장경제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서인지 별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청정 공기와 유기농 육류, 보드카로. 그런데 지도자가 결심, 선언할 때까지 파티가 아무리 늦을지라도 지친 노인네들을 포함, 아무도 그 마무리를 암시, 제안하지 않는다. 유교문화권에서나 찾을 수 있는 연장자의 권위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아들이든 일곱째 아들이든 최강자가 권력을 독점

한다. 초원의 파티는 그렇게 12시간이나 걸렸다. 중국 청조의 정책에 의한 부족간 갈등, 20세기 초 중국으로부터의 자치를 쫓던 일본의 침식, 그러나 만주국 건국 후 ‘우방’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와 환멸, 몽골 건국(1924) 후 만몽 양측의 대대적인 숙청과 학살(러시아 혹은 일본 스파이 혐의의), 노몬한 전투에서 동족간의 대치, 오늘날 여러 강대국이 지하자원을 넘보는 그 비극의 역사를 아랑곳 않고. 만몽국경 노몬한의 전투는 만주를 포함, 중국, 일본에 머물렀던 나의 지적 경계를 넘어가게 만든 새로운 세상이었다.